

강진군, 한우 농가 지원 확대

영세농서 전제 농가로 지원 확대 농가당 최대 54만원 사료비 보전 예비비·도비 3억6000만원 확보

강진군이 사료값 상승과 한우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사육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료비 지원 대상을 전제 한우 농가로 확대한다.

강진군은 이를 위해 군 예비비 2억 3500만원과 도비 지원금 1억 3100만원을 합쳐 총 3억 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예초 계획은 2024년 12월 13일 축산물이력제를 기준으로 60마리 이하 소규모 한우 농가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으나, 강진군은 61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지난 3월과 4월 진행된 규모별 한우 사육 농가와와의 현장 순회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강진군은 전제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이후 구매한 배합사료 및 TMR·TMF 사료비 인상 차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농가 당 최대 지원액은 54만원이며, 30두까지 마리 당 1만 8000원이 지원된다.

강진군 내에서는 총 1034농가에서 4만여 마리



강진원(가운데) 강진군수가 가축시장을 방문해 한우 농가를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강진군 제공>

한우를 사육 중이며 이 중 60두 이하 사육 농가는 841호(81%), 61두 이상 사육 농가는 193호(19%)를 차지한다.

군은 2월 중으로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고, 3월 상순부터 지원금을 정산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이와 함께 한우 개량, 등급 향상 기자재 지원, 경영 안정 장려금, 사양 관리 기자재 지원 등 총 27종 사업에 13억 80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한우 산업은 농촌 경제의 중요한 기반 산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우 사육 농가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관광공사 '장성 방문의 해' 성공 맞손

지역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장성군이 올해 '장성 방문의 해' 성공 운영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손잡았다.

장성군은 김한중 장성군수와 김원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이 지난 5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과 한국관광공사는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추진과 장성관광 활성화 공동 홍보 지원, 방문객 유치 등 '장성 방문의 해' 성공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장성군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협력 등도 협약에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장성 방문의 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축령산, 백양사, 장성호, 황룡강 등 군의 주요 명소를 무대로 펼쳐지는 관광 프로젝트다.

오는 4월 장성 최초로 열리는 전남제전·전남장애인제전 개최에 맞춰 '1000만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기획됐다.



김한중(왼쪽) 장성군수와 김원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의 협약이 품격 있는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장성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관광으로 성장하는 장성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전남신보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10억원 규모 특별보증 공급

화순군이 최근 전남신보보증재단과 '2025년 화순군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순군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사진>

이번 협약은 최근 심각한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화순군은 1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전남신보보증재단은 1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화순군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같은 각종 정책자금과 연계하여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중·저신용(신용 5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대



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특별출연은 화순군 지역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나주배의 사계'...배농사 과정 실감 콘텐츠 체험해요

배박물관에 가상현실 체험관 운영 인공수분서 수확까지 실감 체험

국내 유일의 배 박물관인 나주배박물관이 배 재배 전 과정을 가상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를 선보인다.

나주시는 배박물관 2층에 나주배의 사계를 주제로 한 실감 콘텐츠(가상 현실) 체험관 운영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가상현실 체험관은 지난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전남문화콘텐츠지원사업 선정으로 구축했다.

나주배박물관을 방문하면 배 재배 영상을 관람한 후 벽면과 바닥 면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인공수분(봄), 열매숙기·봉지씌우기(여름), 수확(가을), 가지치기(겨울) 등 계절별 배 재배 과정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다.

박물관의 새로운 캐릭터인 배꽃 요정 '이화'와 배 농부 '이담'은 체험관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무엇보다 실감 콘텐츠 체험 설명과 배 재배 과정의 이해를 도와줌으로써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체험관은 별도 예약 없이 10명씩 선착순으로 입장한다. 체험시간은 '영상 5분·가상 체험 5분' 등 총 10분이다.



나주배박물관이 구축한 '나주배의 사계' 실감 콘텐츠관에서 어린이들이 체험 학습을 하고 있다.

5세 미만 아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를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다.

나주배박물관은 박물관 관광상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3월 실감콘텐츠 라이브스케치를 추가로 구축해 나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배박물관 실감 콘텐츠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나주의 대표 특산물인 나주배 재배 과정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크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방문·체험객들의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중년쉼터' 노년기 소통 거점 자리매김

지난해 1만9947명 이용 호응

담양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년쉼터'가 중장년 세대의 노년기 준비와 소통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중년쉼터는 지난 2022년부터 7개소를 운영하며 중장년 세대의 노년기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만9947명, 월 평균 1662명이 이용했다.

중년쉼터는 사랑방의 교류 문화를 기반으로, 중년층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담양읍 터미널 옆 2층에 자리한 '군민 사랑방'에서는 지난해 사회적 연결 강화 프로그램을 214회 운영해 고립·은둔 상태의 청·장년층에게 도움을 줬다. 중년층이 고립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

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감과 위로를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혼자 지내면서 사람들과의 대화가 두려웠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오랜만에 웃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중년쉼터를 오는 2026년까지 12개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중년 세대는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며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